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김제시 꿈드림 도서 기부

[강현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28일 '구성원 도서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100여 권의 도서를 김제시 꿈드림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도서기부 캠페인'은 임직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기부한 도서는 김제시 꿈드림에 기부되어 지역 청소년의 경제 교육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꿈드림은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습지원, 개인상담, 자기계발, 진로검사,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하인호 지사장은 "책 나눔 사업을 통해 꾸준히 독서 취약계층에 책을 보급하겠다"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꾸준히 책을 접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변화와 기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구성원 도서기부 캠페인' 외에도 매년 농촌 집고쳐주기, 저수지 환경정화 쓰담쓰담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천과 ESG 경영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제=강현규 기자

251029085313.jpg
(557 X 829)

농촌공 동진지사, 도서100여권 기증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28일 '구성원 도서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100여권의 도서를 김제시 꿈드림에 기증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도서기부 캠페인'은 임직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기부한 도서는 김제시 꿈드

림에 기부돼 지역 청소년의 경제·교육·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꿈드림은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습지원, 개인상담, 자기계발, 진로검사,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하인호

지사는장은 "책 나눔 사업을 통해 꾸준히 독서 취약계층에 책을 보급하겠다"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꾸준히 책을 접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변화와 기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구성원 도서기부 캠페인' 외에도 매년 농촌 집고쳐주기, 저수지 환경정화, 상담쓰담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천과



ESG 경영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제 양병대 기자 ybd3465@daum.net

(23.6*6.4)cm